

難經에서 按脈의 輕重에 따른 五臟配屬方法에 對한 脈經 및 後代醫家說과의 比較研究

尙志大學校 南 斗烈·金 泰熙

I. 緒論

四診中 切診에 屬하는 脈診은 疾病을 診斷하는데 있어 매우 重要하다.

脈診方法은 按脈部位에 따라 三部九候診法, 人迎氣口診法, 寸口診法과 按脈시 나타나는 脈象에 의해 判別하는 方法으로 區分할 수 있으며 모두 指法에 의해 脈象을 판단한다. 指法은 按脈의 輕重, 推, 경 등이 있는데 대개 舉, 按, 尋 또는 浮, 中, 沈으로 나누어 說明하였다.

《難經》에서는 이와 달리 처음에 脈을 잡아서 三菽의 무게로 皮毛와 相得하는 것을 肺部이고, 六菽의 무게로 血脈과 相得하는 것은 心部이며, 九菽의 무게로 肌肉과 相得하는 것은 脾部이며, 十二菽의 무게로 하여 筋에 이르러서 筋에 이르게 하여 얻는 것은 肝部이고, 骨에 이르도록 按하여 舉指來發한 것은 腎部라¹⁾하여 按脈의 輕重에 따른 五臟脈의 位置를 設定하고 있다.

이 理論은 《難經》에서 처음 提示된 것으로 그 後代에도 單純한 引用^{2,3,4,5,6,7,8)}만 있었을뿐 이에 對한 說明이나 脈法으로서의 發展이 없었다. 또한, 現今 韓醫界一角⁹⁾에서는 《難經》에서와 같이 按脈의 輕重에 따른 五臟脈診法을 使用하고 있으므로 이에 對한 理論的 定立과 臨床上의 活用與否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方法으로 調査하여 보았다.

三, 六, 九, 十二菽이라는 것은 按脈의 輕重을 나타낸 것으로 浮, 中, 沈의 意味를 갖고 있으며, 心肺俱浮하고 肝腎俱沈하고 脾主中州 其脈其中¹⁰⁾하였기 때문에 三, 六, 九, 十二菽의 輕重을 浮, 中, 沈의 概念으로 바꾸어서 調査했다.

우선 《難經》과 時代的으로 가장 가까운 脈學專門書인 《脈經》에서 五臟의 脈을 平脈과 病脈으로 나누어 調査한 結果¹¹⁾는 五臟의 平脈에서는 心肺의 脈은 浮脈을 爲主로 나타냈고, 肝腎의 脈은 沈脈을 爲主로 나타냈으며, 脾脈은 胃氣의 脈인 緩脈을 爲主로 나타냈다. 이는 《難經》에서 按脈의 輕重에 따라 五臟의 脈을 알 수 있다는 方法과 一致하였다.

五臟의 病脈에서는 心肺의 脈이 沈脈을 나타내거나, 肝腎의 脈이 浮脈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難經》에서의 按脈의 輕重에 따라 五臟의 脈을 알 수 있다는 方法과 一致하지 않았다.

《脈經》以後의 諸醫家에서 五臟의 脈은 《內經》, 《難經》, 《脈經》을 그대로 따랐고 五臟脈에 關해서 새로운 說明은 없었으며, 대개 病證 또는 原因別로 說明을 하여 五臟中 어느 한 臟에 歸屬되는 病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五臟의 病脈과 五臟의 虛實 또는 寒熱辨證에 있는 脈을 찾아서 浮, 中, 沈으로 나누어 調査하여 《脈經》에서의 結果와 比較하여 報告하는 바이다.

II. 本論

1. 《難經》에서의 按脈의 輕重

五難曰脈有輕重何謂也 然初持脈 如三菽之重與皮毛相得者 肺部也 如六菽之重與血脈相得者心部也 如九菽之重與肌肉相得者 脾部也 如十二菽之重 與筋平者 肝部也 按之至

骨學指來發者腎部也 故曰經重也¹²⁾

여기서, 菽이란 豆의 別名이며^{13,14)} 三, 六, 九, 十二의 數字는 實際的인 豆의 重量을 말함아 아니고, 按脈時의 輕按과 重按의 程度를 表示하기 爲해 도입한 것이며¹⁵⁾ 腎에 대한 數字의 言及은 없으나 比率로 보아 十五菽之重으로 類推할 수 있다.¹⁶⁾

肺는 五臟中에서 最上에 在하며 主皮毛하고, 心은 肺下에 在하며 主血脈하고, 脾는 心下에 在하며 主肌肉하고, 肝은 脾下에 在하며 主筋하고, 腎은 肝下에 在하며 主骨하므로¹⁷⁾ 五臟의 上下次序와 五臟所主에 의해 按脈의 輕重을 肺, 心, 脾, 肝, 腎의 순서로 菽의 重量으로 定하였다.

그리고, 呼吸時에 呼氣는 心과 肺에서 出하고 吸氣는 腎과 肝에서 入하며 呼吸之間에 脾가 穀味를 받기 때문에 其脈在中이라¹⁸⁾ 하였는데 呼出爲陽이며 吸入爲陰 이므로 心肺爲陽이며 腎肝爲陰이다.¹⁹⁾ 脈의 陰陽에서 浮는 陽이고 沈은 陰인 故로 心肺는 俱浮하고 肝腎은 俱沈하고, 脾는 不浮不沈²⁰⁾하므로 浮에서는 心肺, 中에서는 脾, 沈에서는 肝腎을 候한다. 그러므로 心肺의 脈은 浮脈 爲主로 나타나야 하고, 肝腎의 脈은 沈脈 爲主로 나타나야 한다.

2. 王叔和 《脈訣》

本書는 六朝의 高陽生이 王叔和를 託名한 作品으로 알려져 있으며, 《文獻通考》에서는, 本書가 隋, 唐의 《經籍誌》에 실려있지 않으므로 宋 熙寧 이전에 先人의 이름으로 쓴 것이 아닌가 보고있다.²¹⁾

1) 肺病脈

肺脈이 浮兼實하면 咽燥, 大便難, 鼻內乏馨香이고, 實大相兼滑하면 毛焦, 涕沓粘이고, 沈緊相兼實하면 咳嗽이고 弦하면 冷腸中結이고, 芤이면 暴痛無成이고, 沈細乃兼滑이면 暴蒸, 皮毛總澁이다.²²⁾

2) 心病脈

心脈이 芤이면 陽氣作聲, 血病吐交作이고, 大實이면 面赤風 燥痛이고, 微하면 主寒而虛欸 寒熱交作이고 急하면 腸中痛不通이고, 實大而滑이면 舌不活動, 心中驚惕, 語言蹇澁이고, 單滑이면 心熱別無病이고, 澁이면 無心力하고 不多言이고, 沈緊이면 心中逆冷痛이고, 弦하면 心急又心懸이라.²³⁾

3) 肝病脈

肝脈이 緊이면 筋急이고, 細看浮大便兼實하면 赤痛昏昏이고 芤이면 眼暗或吐血, 四肢坦緩不能行이고, 澁이면 肋脹脇滿이고, 滑하면 肝熱連頭目이고, 緊實弦沈하면 疝瘕이고, 微弱浮散하면 氣作難하고 目暗生花이고, 甚浮이면 筋弱身無力해진다.²⁴⁾

4) 腎病脈

腎脈이 散하면 腰間氣滯로 腰多即滑精이고, 實滑이면 小便澁, 淋痛澁이고, 澁이면 精漏, 恍惚夢魂多이고 實大이면 膀胱熱小便難不通이고, 滑弦이면 腰脚重이고, 沈緊이면 痛遶周이고, 浮緊이면 耳聾이다.²⁵⁾

5) 脾病脈

脾脈이 實兼浮이면 消中脾胃虛, 口乾饒水, 多食亦肌虛이고 單滑이면 脾家熱로 口臭氣多醜이고, 澁이면 非多食食不作肌膚이고, 微浮이면 傷寒熱 來去作微疎이고, 緊이면 脾家痛 兼筋急拘, 欲吐即不吐 沖沖未得疎이고, 弦이면 肝氣盛으로 妨食被譏謀이고, 大이면 食心中痛이다.²⁶⁾

(表 I)

	浮兼實	實大相兼滑	沈緊相兼實
--	-----	-------	-------

肺病脈	弦	芤	沈細兼滑
心病脈	芤 單滑	大實 壅	微 急 實大而滑 弦
肝病脈	緊 滑	細看浮大便兼實 緊實弦沈	芤 微 澁 浮散 甚浮
腎病脈	散 滑弦	實滑 沈緊	澁 實大 浮緊
脾病脈	實兼浮 緊	單滑 弦	澁 微浮 大

表 I 에서와 같이 五臟의 病脈에서는 心肺의 脈이 沈脈이 나타나거나 肝腎의 脈이 浮脈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脾脈은 浮脈을 비롯한 다양한 脈이 나타났다.

3. 《太平聖惠方》

肺虛의 脈은 沈緩이고, 肺實의 脈은 滑實이다. 心虛의 脈은 浮而虛이고, 心實의 脈은 洪實相搏이다. 肝虛의 脈은 沈細滑이고, 肝實의 脈은 浮大而數이다. 腎虛의 脈은 浮細而數이고, 腎實의 脈은 浮緊이다. 脾虛의 脈은 沈細軟弱이고 脾實의 脈은 緊實이다.²⁷⁾

(表 II)

五臟 虛實	虛	實
肺	沈緩	滑實
心	浮而虛	洪實
肝	沈細滑	浮大而數
腎	浮細而數	浮緊
脾	沈細軟弱	緊實

表 II 에서와 같이 肺虛實脈에서는 浮脈이 아닌 沈緩, 滑實脈 등이 나타났고, 心虛實脈

에서는 浮, 洪脈으로 나타났는데 洪脈은 似浮而大한 脈象²⁹⁾이므로 浮脈種類에 屬한다. 肝虛實脈에서는 沈脈과 浮脈이 같이 나타났으며 腎虛實脈에서는 浮脈을 爲主로 나타냈다. 脾虛實脈에서는 沈脈을 비롯한 다양한 脈이 나타났다.

4. 《濟生方》

肝虛의 脈은 沈緩이다. 心虛寒의 脈은 浮而虛이고, 心實熱의 脈은 洪寒이다. 肝虛寒의 脈은 沈細而滑이고, 肝實熱의 脈은 浮大而數이다. 腎虛의 脈은 沈細而數이고 腎實의 脈은 浮緊이다. 脾虛寒의 脈은 沈細軟弱이고 脾實熱의 脈은 緊實이다.²⁹⁾

(表III)

五臟 虛實寒熱	虛	虛寒	實	實熱
肺	沈緩			
心		浮而虛		洪實
肝		沈細而滑		浮大而數
腎	浮細而數		浮緊	
脾		沈細而軟弱		緊實

濟生方에서의 五臟의 虛實及虛寒 實熱의 脈은 太平聖惠方과 同一하다.

5. 《普濟方》

肺虛의 脈은 右手寸口氣口以前陰虛, 浮緩이고, 肺實의 脈은 右手寸口以前脈陰實이다. 心虛의 脈은 左手寸口人迎以前脈陰虛이고, 心實의 脈은 左手寸口人迎以前脈陰實이다. 肝虛의 脈은 左手關上脈陰虛, 沈細而滑이고, 肝實의 脈은 左手關上陰實, 浮大而數이다. 腎虛寒의 脈은 左手尺中神門以後脈陰虛, 浮細而滑, 或代絕不時至이고, 腎實熱의 脈은 左手尺中神門以後脈陰實, 浮緊이다. 脾虛冷의 脈은 沈細軟弱이고 脾實熱의 脈은 緊實이다.³⁰⁾

(表IV)

肺	虛	右手寸口氣口以前陰虛
	實	右手寸口氣口以前陰實
心	虛	左手寸口人迎以前脈陰虛
	實	左手寸口人迎以前脈陰實
肝	虛	左手關上脈陰虛 沈細而滑
	實	左手關上脈陰實 浮大而數

腎	虛寒	左手尺中神門以後脈陰虛 浮細而滑 代
	實熱	左手尺中神門以後脈陰實 浮緊
脾	虛冷	沈細軟弱
	實熱	緊實

III. 結論

《難經》에서 按脈의 輕重에 따른 五臟脈을 三, 六菽은 浮, 九菽은 中, 十二菽, 至骨까지 按하는 것은 沈으로 하여 脈經以後의 諸醫家說을 調査하여 《脈經》에서의 結果와 比較하면 다음과 같다.

1. 五臟의 病脈에서는 心肺의 脈이 沈脈을 나타내거나, 肝腎의 脈이 浮脈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脈經》에서와 같다.

2. 五臟의 虛實脈에서는 肺脈이 沈脈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었고 心脈은 浮脈을 爲主로 나타났으며, 肝脈은 浮脈과 沈脈이 같이 나타났으며, 腎脈은 浮脈 爲主로 나타났다. 肺脈과 肝脈은 《脈經》에서의 結果와 같고, 心脈과 腎脈은 《脈經》에서의 結果와 다르다.

3. 《難經》에서 按脈의 輕重에 따른 五臟脈은 《脈經》 및 後代醫家들이 說明한 五臟의 病脈과는 一致하지 않았다.

4. 따라서 《難經》에서 按脈의 輕重에 따라 五臟의 脈을 알수 있다는 脈法은 實際 臨床에서 쓰이는 脈法이 아니라 臟腑의 位置概念을 脈에 도입하기 위한 하나의 方法이다.

5. 앞으로 《難經》에서 按脈의 輕重에 따라 五臟의 脈을 알수 있다는 方法은 그 意味를 脈診理論의 發達史的인 측면에서 재조명 되어야 한다.

「參考文獻」

1. 金泰熙外, 漢方診斷學, 서울 成輔社, 1988.
2.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 서울 成輔社, 1985.
3. 許浚, 東醫寶鑑, 서울 大星文化社, 1981.
4. 南斗烈外, 難經에서 按脈의 輕重에 따른 五臟配屬方法에 對한 脈經과의 比較研究, 大韓韓方內科學會誌 Vol, 13, No,1 1992.
5. 唐湘清, 難經今釋, 臺北, 國立編譯館, 1983.
6.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서울 大星文化社, 1984.
7. 嚴用和, 濟生方(醫方類聚(1分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8. 王叔和, 脈訣(圖註難經脈訣, 臺南, 大學書局, 1977)
9. 王懷隱外, 太平聖惠方, 北京, 平常心出版社, 1988.
10. 張介賓, 景岳全書, 서울 翰成社, 1983.
11. 張機, 傷寒論(醫部全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12. 朱橚, 普濟方(中國醫學大系(5冊), 臺北, 商務印書館, 1990)
13. 崔嘉彥, 脈訣(東垣十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3)
14. 扁鵲, 難經(圖註難經脈訣, 臺南, 大學書局, 1977)

15. 滑壽, 難經本義, 臺北, 泰華堂出版社, 1979.
16. 滑壽, 診家樞要(醫部全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 註 1. 扁鵲, 難經(圖註難經脈訣, 臺南:大孚書局, 1977. 卷一.P.8)
2. 張機, 傷寒論(醫部全錄,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3, 3冊.P.73)
 3. 王叔和, 脈經, 香港:太平書局, 1982, P.5
 4.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서울:大星文化社, 1984, P.493
 5. 崔嘉彥, 脈訣(東垣十書, 서울:大星文化社, 1983, P.7)
 6. 滑壽, 診家樞要(醫部全錄,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3, 3冊, P.180)
 7. 張介賓, 景岳全書, 서울:翰成社, 1983, P.96,97.
 8. 許浚, 東醫寶鑑, 서울:大星文化社, 1981, 雜病篇, P.111.
 9. 釜山石谷學會(民族醫學 第13,14號)
 10. 扁鵲, 難經(圖註難經脈訣, 臺南:大孚書局, 1977, P.6)
 11. 南斗烈外, 難經에서 按脈의 輕重에 따른 五臟配屬方法에 對한 脈經과 의 比較研究, 大韓韓方內科學會誌, Vol,13, No,1, PP.67.68.
 12. 扁鵲, 難經(圖註難經脈訣, 臺南:大孚書局, 1977, 卷一, P.8)
 13. 前掲書, 卷一, P.8.
 14. 唐湘清, 難經今釋, 臺北:國立編譯館, 1983, P.46.
 15. 前掲書, P.46.
 16. 滑壽, 難經本義, 臺北:泰華堂出版社, 1979, P.8.
 17. 前掲書, P.8.
 18. 扁鵲, 難經(圖註難經脈訣, 臺南:大孚書局, 1977, 卷一, P.5)
 19. 滑壽, 難經本義, 臺北:泰華堂出版社, 1979, P.6)
 20. 扁鵲, 難經(圖註難經脈訣, 臺南:大孚書局, 1977, 卷一, P.6)
 21.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 서울 成輔社, 1985, P.181.
 22. 王叔和, 脈訣(圖註難經脈訣, 臺南:大孚書局, 1977, 卷二, P.16)
 23. 前掲書, PP.4,5.
 24. 前掲書, PP.8,9
 25. 前掲書, PP. 12,13
 26. 前掲書, P.20
 27. 王懷隱外, 太平聖惠方, 北京, 平常心出版社, 1988, PP.56,58
 28. 金泰熙外, 漢方診斷學, 서울 成輔社, 1988, P.237
 29. 嚴用和, 濟生方(醫方類聚,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1, PP.255,256, 258,259)
 30. 朱權, 普濟方(中國醫學大系, 臺北, 商務印書館, 1990, 15冊, PP.747-319,376,383,471,480,681,691,773,777)